아름다운 수지…생명나눔 사업 위해 1억원 기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생명나눔 사업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수지는 최근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에 생명존중문화 확산 캠페인과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1억원의 후원금을 전했다. 수지는 2015년 사랑의열매의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는 등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중국길 막힌 케이팝, 덕분에 세계로 흐른다

엑소가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스타디움 메르데카에서 세 번째 투어 '엑소 플래닛 #3-디 엑소디움 인 쿠알라룸푸르'를 벌였다. 같은 날 태국 방콕에서는 김재중(아래 사진)이 4년 만의 공연으로 5000여 관객을 사로잡았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씨제스엔터테인먼트

김재중 방콕, 엑소 말레이시아 공연 등
중국 제외한 세계 곳곳서 케이팝 축제
4월 美투어 B.A.P, 유럽투어까지 추진
시장 다변화 노력…'한한령' 되레 기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은 한류 콘텐츠 생산 및 유통, 소비를 막는 '한한령'을 발동시켰다. 이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류는 세계시장에 흐르고 있고, 오히려 '케이팝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지구촌은 케이팝으로 뜨거웠다.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는 물론 세계 대중음악의 최대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남미의 브라질, 멕시코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케이팝 무대가 펼쳐졌다.

방탄소년단과 샤이니가 19일 각각 브라질 상파울루, 캐나다 토론토, 슈퍼주니어 규현이 태국 방콕에서 공연을 벌였다. 김재중과 엑소는 18일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나란히 공연했다. 그룹 아이콘은 18·1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콘서트를 펼쳤다. 17·18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는 방탄소년단·NCT127·몬스타엑스·레드벨벳 등이 참여한 한류축제 '케이콘 2017 멕시코'가 열렸다. 드렁큰타이거·윤미래·효린·노브레인 등은 17일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음악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에서 '케이팝 나이트 아웃' 무대를 꾸몄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이 케이팝으로 뜨거운 주말이었다.

뒤이어 비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공연한다. 현지에서는 "월드스타급 방문"이라며 환영한다. 소녀시대는 4월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자선콘서트에 출연한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오디션을 통해 NCT 인도네시아 멤버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해 현지를 술렁이게 했다. 변방으로 꼽히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대형 가수의 콘서트와 오디션이 열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방탄소년단은 3월 말부터, B.A.P는 4월부터 미국 투어에 나선다. 이후 각각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유럽으로 이어간다. 작년 중국 진출에 나섰다가 한한령의 벽에 부딪혔던 EXID는 올해 중국 대신 일본 및 태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를 무대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콘 2017 멕시코'에 참가했다가 북남미 투어 제안도 받았다.

'사드 몽니'로 인한 중국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케이팝 스타들은 이처럼 시장다변화를 모색하며 한류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아이돌 스타를 보유한 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한한령이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을 절감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다변화의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tvN '하백의 신부' 中 동시방송 일단 Go!

1차 심의 거부 불구 계속 시도 방침
방송날짜 확정 않고 25일 촬영 돌입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이 중국 동시방송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신세경과 남주혁 주연의 '하백의 신부 2017'은 2년여 준비를 마치고 25일 첫 촬영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중국 동시방송을 위한 현지 당국의 심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본격적인 제작 과정에 돌입하는 것도 이 같은 의지의 발현이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하백의 신부 2017' 제작진은 2015년부터 드라마화를 추진했다. 당시는 지금처럼 중국 동시방송의 장벽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드라마가 현지 방송담당 정책부서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어려워졌다.

'하백의 신부 2017'도 타격을 입고 있다. 기획 초기만 해도 큰 무리 없이 방송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정세에서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제작진은 1차 심의 과정에서부터 '거부'를 당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능한 중국 동시방송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다.

'하백의 신부 2017'은 만화 속 '물의 신(神)' 하백과 한 여자의 사랑이라는 판타지 로맨스 이야기를 현대의 서울로 옮겨 그린다. 2014년 동명의 웹툰 '미생'의 정윤작 작가 신작이며 중국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돌아온 '나인:아홉번의 시간여행'의 김병수 PD가 연출을 맡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씨스타 보라, 이젠 스크린 데뷔

김지혜 감독 '썬키스트…' 출연 확정

걸그룹 씨스타의 보라가 스크린에 데뷔한다.

보라는 4월부터 촬영을 시작하는 영화 '썬키스트 패밀리'(감독 김지혜·제작 영화사두둥)를 통해 스크린으로 활동 무대를 넓힌다. 얼마 전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제안을 받은 그는 새로운 도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영화는 한 가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엉뚱하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를 담는다. 무엇보다 보라가 데뷔작에서부터 쟁쟁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사실도 눈에 띈다. 이야기를 이끄는 부부 역은 박희순과 진경이 맡은 가운데 최근 이광수도 합류해 더욱 탄탄한 진용을 갖췄다.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배우들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19일 "영화에서 보라는 주인공 소년이 짝사랑하는 캐릭터"라며 "그룹 활동으로 인정받은 건강하고 밝은 매력을 스크린으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보라는 2014년 방송한 SBS 드라마 '닥터 이방인'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당시 이종석과 호흡을 맞춘 보라는 꿋꿋하게 삶을 개척하는 탈북자 역을 소화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후 그룹 활동에 집중해온 그가 영화를 택한 배경에는 제작진을 향한 기대도 작용했다. '썬키스트 패밀리'는 이준익 감독의 '사도'와 최근 현빈이 촬영한 '꾼'에 참여한 제작진의 신작이다. 최근 극장가에서 다시 주목받는 코미디 장르로 웃음을 앞세운 영화를 내놓는다.

'씨스타'의 보라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진짜 하숙집 찾는 '하숙집 딸들'

대학가 찾아 청소·빨래 등 새 포맷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하숙집 딸들'이 실제 하숙집을 찾는다.

19일 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하숙집 딸들'은 21일 방송부터 새로운 포맷을 선보인다. 이미숙, 박시연, 이다해 등이 실제 대학가 하숙집을 방문해 이곳에서 생활하는 하숙생들을 만난다.

출연진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충 해결에 나선다. 대학생들이 등교와 아르바이트로 집을 비우면 출연진이 청소와 빨래, 식사 등 일손을 돕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한다. 장신영과 윤소이가 하차한 자리에 박나래와 정채연이 합류한다.

방송 한 달 만에 직면한 위기를 대대적인 개조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2월14일 첫 방송한 '하숙집 딸들'은 설정상 하숙집 주인 이미숙과 그의 딸들이 남성스타를 하숙생으로 받아들여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예능프로그램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출연자들이 대거 출연해 방송 전 높은 관심을 모았지만, 저조한 시청률에 화제성도 미미했다.

기대와 다른 반응에 위기를 인식한 제작진은 이달 초부터 다양한 변화를 고민해왔다. 결국 논의 끝에 하숙집이라는 설정은 그대로 두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하숙집을 아이템으로 선택했다. 그동안 이들이 생활한 하숙집은 값비싼 가구와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실제 하숙집으로 장소를 이동해 사실감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다"며 "시청자의 일상에 더욱 깊게 파고들어 공감의 요소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KBS 2TV '하숙집 딸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영화 '지렁이'

4월을 흔들 영화 '지렁이'

소외받는 장애우의 복수와 아픔
실제사례 바탕 인권문제 재조명

왕따, 학교폭력, 성범죄 그리고 차별….

현실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회성 강한 영화가 4월 관객을 만난다. 영화 '철가방 우수씨'의 윤학렬 감독이 새롭게 연출한 '지렁이'(제작 미디어파크)다.

김정균을 비롯해 이계인, 이응경, 이한위, 최철호 등 중견 연기자들이 대거 참여한 영화 '지렁이'는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당하는 소녀와 뇌성마비를 앓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영화는 이 같은 현실을 넘어 성폭력과 차별, 집단이기주의의 비극적 고통에 휘말린 채 이를 뛰어넘으려는 처절한 아픔을 그린다. 뇌성마비 아버지가 끝내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이면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드러내며 관객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윤학렬 감독 등 제작진은 실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났다. 또 이 같은 폭력을 방관했던 이들의 얘기도 들었다. 이 가운데 24편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 현실을 실증한다.

윤학렬 감독은 "나와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밟으면 꿈틀한다는 지렁이의 외침이, 장애우들의 인권과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화 '지렁이'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둔 13일 개봉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연습생 술접대 파문'…특별감시반 등 도입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미성년 연습생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가 이에 대한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일부 악의적인 연예제작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습생을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산업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감시반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도 방송, 언론 및 법조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발족하고, 홈페이지 신문고를 운영해 불법 기획사 및 기획사 사기 등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회원사들의 불법 행위 근절에도 나섰다.

6월 서울·부산서 영화 '라라랜드 인 콘서트'

영화 '라라랜드'의 삽입곡을 라이브로 감상하는 콘서트 '라라랜드 인 콘서트:어 라이브 투 필름 셀러브레이션'이 6월3·4일 서울(롯데 콘서트홀), 6일 부산(KBS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을 위해 '라라랜드' OST 작곡가이자 음악감독 저스틴 허위츠가 70인조 오케스트라, 합창단, 재즈 앙상블 등과 함께 내한한다. '라라랜드' 콘서트는 5월26·27일 미국 LA를 시작으로 핀란드, 러시아, 영국, 터키 등을 돌며 약 1년 동안 펼쳐진다. 영화 '라라랜드'는 국내에서 누적 관객 약 350만명을 기록했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3월 12일~3월 18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미녀와 야수	1,006,511	03/16
2	콩 : 스컬 아일랜드	1,424,333	03/08
3	로건	2,028,723	03/01
4	해빙	1,191,289	03/01
5	비정규직 특수요원	81,326	03/16
6	재심	2,412,261	02/15
7	23 아이덴티티	1,671,240	02/22
8	라라랜드	3,445,302	12/07
9	파도가 지나간 자리	64,231	03/08
10	문라이트	156,341	02/22

편집 | 좌혜경·김청조 기자